

# 여전히 부진할 내년도 수출입

李 相 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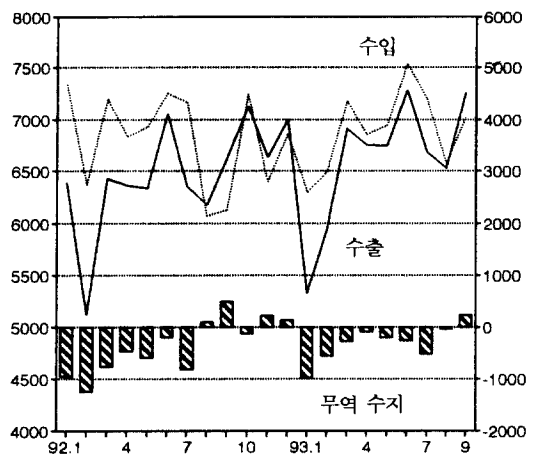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93년

93년의 우리나라 수출은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엔고와 중국 특수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올 초부터 본격화된 엔고 현상과 중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특수로 일부 품목(자동차, 철강, 전자 등 중화학 제품)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상실과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대선진국 수출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9월말 현재 전체 수출은 594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약 822억 달러로 7.3%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정부 목표 83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이러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지는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설비 및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든데다가, 국제 원자재가의 하락으로 수입 단가가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9월말 현재의 전체 수입은 62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2.0% 증가한 8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93년 연간 경상 수지는 약 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92년의 45.3억 달러의 적자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수출입과 무역 수지의 월별 추이  
(단위:백만 달러)



주 : 좌측은 수출입, 우측은 무역 수지

## 94년 수출의 운곽

94년에도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진국 경기가 뚜렷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년의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회복의 폭이 크지

\* 연구원, 서울대 경제학 석사, 국제경제 전공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경기 회복이 수출 증대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일본 및 EC의 경기 회복 지체는 대선진국 수출 증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대미 수출의 경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과 일부 품목(전기·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엔고 효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경기가 93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올해와 같은 폭발적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올림픽 유치 실패로 건설 및 전자 등의 특수가 무산되어 철강, 자동차, 섬유류 등의 對中 수출은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고 현상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내년에 크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경공업 제품은 일본이 아닌 후발 개도국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일본 기업의 제3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올해보다 6.7% 늘어난 877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 품목별 수출 전망

#### 경공업 제품

섬유,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 수출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부진을 면

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 중저가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제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시켜, 후발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한 내년에도 수출 감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중화학 제품

올해 엔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수출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 제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리 전망이 밝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선진국 수출에서도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대미 수출 및 대EC수출)와 자동차(대미 수출)를 제외하면, 여타의 중화학 제품은 사실상 경쟁력이 확고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및 개도국 특수에 의존하여 수출이 늘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및 개도국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내년에 올해와 같은 수출 증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엔고로 인한 대미 수출 호조로 93년의 수출 증가 추세를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엔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의 가격 인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 증대 효과가 높지 못하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부품의 경우에는 엔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전자 업체들이 한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호조를 보일 것이다.

93년도에 사상 최대의 수출 물량(약 60만 대 예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의

경우, 내년에는 對中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전체적으로는 유럽 및 중동 등 신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 및 녹다운 방식의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노사 관계 안정화 추세만 이어 나간다면 전기·전자와 함께 94년도 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수출 덩핑 시비에 시달렸던 철강의 경우, 올해에는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회하는 對中 수출 증가로 93년의 수출 경기를 주도해 왔으나, 내년에는 對中 수출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94년 수입 전망

올해의 수입 증가율 둔화는 무엇보다도 내수용 수입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는 80년도 후반 이후 국제 수지 악화의 한 원인이었던 소비재 수입의 증대(즉 과소비)가 진정되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부진에 따라 국내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수출용 수입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설비 투자도 서서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높은 폭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4년도 수입은 올해보다 5.3% 증가된 87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은 올해의 예상치 2.0%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80년대 후반 부

터 91년 이전까지 매년 약 15% 이상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 94년 국제 수지 전망

수입 증가율 둔화에 힘입은 국제 수지 개선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에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 수지는 통관 기준으로 1억 달러의 적자에 그치면서 균형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외 수지는 운수 관련 경비 지급의 증가와 여행 경비 지급의 확대에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94년도 수출입 및 국제 수지 전망

	92년	93년(추정)	94년(전망)
수출 (증가율)	766.3 (6.6%)	822 (7.3%)	877 (6.7%)
수입 (증가율)	817.8 (0.3%)	834 (2.0%)	878 (5.3%)
무역수지	-29.5	-12	-1
경상수지	-45.3	-5	0

주 : 1) HRI 전망치  
2) 수출입 및 무역 수지는 통관 기준이며, 경상 수지는 국제 수지 기준임.